

조국이 해방되던 해 방사선과학을 전공 하시던 몇 분의 선배들이 모여 부족한 시설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대한방사선의학회는 그동안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및 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전산화단층촬영(CT),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각종 첨단 방사선 영상진단장치 등의 개발과 중재적 방사선과학의 발달로 질병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방사선의학회 5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전 회원의 숙원이었던 학회 회관을 구입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우수한 학회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여러 차례의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회원들의 국제 우수학술지 논문발표가 그 숫자나 내용면에서 최고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창립 50돌...작년 국제학술대회 주관 대한방사선의학회

해방되던 해 창립된 대한방사선의학회는 창립 50돌을 맞아 지난해 9월26일부터 5일간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학술단체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정회원 1천1백75명, 준회원 6백66명으로 구성된 대한방사선의학회는 발표논문수가 늘어 학회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학술상 제정과 더불어 전공의 대상으로 매년 두차례 정기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펴오고 있다.



徐廷鎬
(대한방사선의학회 이사장)

의 진단과 치료에 방사선과의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방사선의 학계에서도 급변하는 세계적인 학문의 발전에 뒤지지 않고 세계 속의 대한방사선의학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의학회는 지난해 학회창립 50주년 및 린트겐교수가 X선을 발견한지 100주년을 기념해 관련학회인 ①대한치료방사학회, ②대한초음파학회, ③대한핵의학회, ④대한방사선방어학회, ⑤한국의학 물리학회와 합동으로 국제대회 규모의 학술대회를 9월26일부터 5일간 성공적으로

회원 1천여명...8개분야 연구회

〈연혁 및 학회조직〉 1945년 해방과 함께 국내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던 의사와 기사들이 모여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현 국군 서울지구병원) 강당에서 총회를 갖고 대한방사선의학회를 창립하였다. 창립 후 1954년까지 10년동안은 방사선과 전문의사와 방사선기사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방사선의학 및 기술연구 친목단체로 함께 활동하였으나, 의사전문직제도가 시작된 1955년에 이르러 방사선기사들만의 대한방사선기술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기사회원이 자연적으로 분리되었고, 그후 대한방사선의학회는 방사선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만의 단체가 되었다. 창립당시 방사선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회원수는 수명에 지나지 않았고 1972년까지 1백여명에 불과했으나 그후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여 1995년 현재 정회원수는 1천1백75명에 이르고 있으며 준회원(전공의) 수도 6백66명에 이르고 있다.

조직은 이사장중심제로 운영되고 있고 회장과 부회장 및 상임이사(총무재무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 수련이사, 의무이사, 기획홍보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논문 편집업무가 방대해지고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국제협력위원장을 따로 두고 있다(학회의 조

직 및 기구표 참조).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지회가 설립되어 학술활동, 보수교육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지회(1961년), 대구경북지회(1962년), 광주전남지회(1967년), 대전충남지회(1975년), 전북지회(1985년), 강원지회(1994년), 제주지회(1994년), 충북지회(1994년) 등 총 8개 지회가 결성되어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초음파, CT, MR 등 첨단 방사선진단장비의 국내 도입으로 방사선과학 분야가 방대해졌고 이에 따라 방사선과학이 세분화, 전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초에 첨단학문인 CT의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하여 CT연구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이 CT연구모임은 후에 신경방사선 과학연

구회와 복부방사선 과학연구회의 모태가 되었다.

그후 흉부, 소아, 근골격계, 심혈관 및 중재적 방사선과학연구회 등이 만들어져 산발적으로 모임을 가져왔다. 1992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연구회를 공식적인 산하단체로 두기로 하였으며 유방방사선 과학연구회(1992년 창립)와 비노생식기계방사선 과학연구회(1993년 창립)를 합하여 총 8개 분야의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다.

학술대회, 매해 연구논문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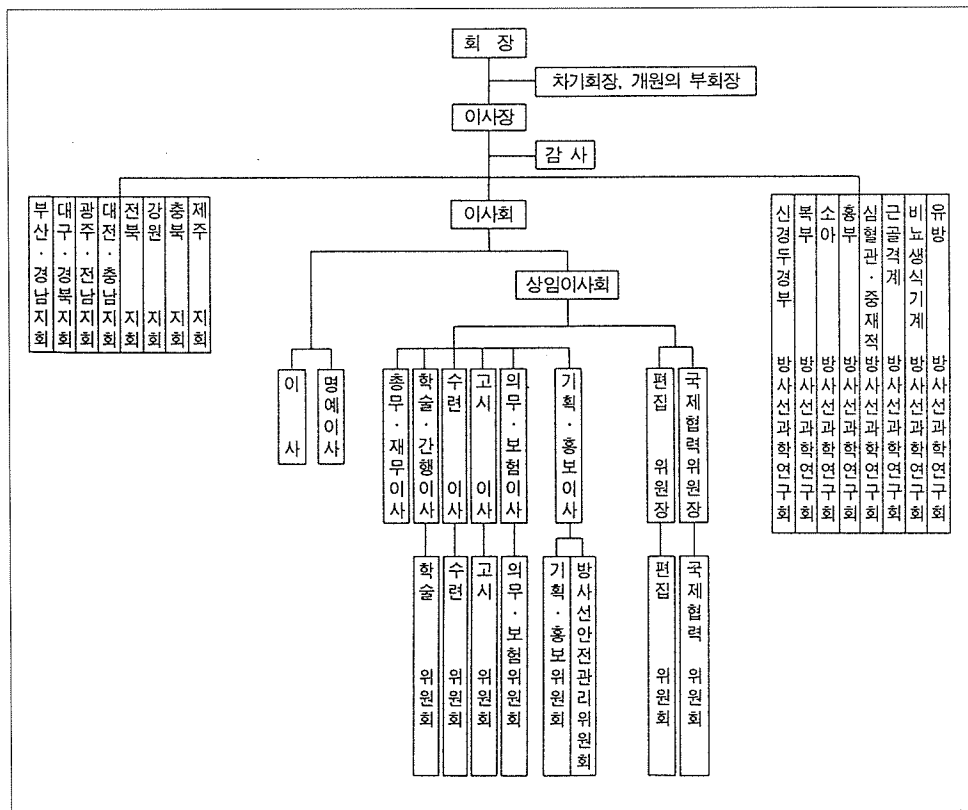
〈학술활동〉 대한방사선의학회가 창립된 그 이듬해인 1946년 3월 27일 린트젠탄생일을 기념하여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후 1972년까지 매년 1회씩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72년 이후로 연 2회의 학술활동을 개최하

고 있다. 학술대회 내용은 1970년까지는 구연(口演)이 유일한 것이었으나 그후 특강, 필름판독회, 학술전시, 기기전시, What's new? 등의 항목이 신설되면서 다양화되었다. 추계학술대회의 연제 발표는 1963년부터 1984년까지 11편에서 44편 정도였으나 1985년 이후 급증하여 1994년에는 구연 2백60편, 학술전시 99편에 이르고 있고 대회일정도 초창기 1일 1실에서 3일 3실로 증가하여 동시 다발로 진행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 학술대회에 발표될 연제의 초록을 규격화하여 연구의 모든 내용이 초록에 압축되도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이에 통과한 연제만 구연하도록 하여 연제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괄목할만한 사항은 제출된 초록의 구연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초록의 숫자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심사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초록의 숫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접수된 초록이 심사과정에서 15~30%가 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제 수의 현저한 증가로 연제발표의 시작을 과거의 오전 9시부터 1992년부터는 오전 8시 30분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춘계학술대회는 1972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대학의 주관하에 심포지엄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1985년 부산에서 개최된 대회부터 일반연제의 구연도 추가되어 10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춘계학술대회의

◇ 학회 조직 및 기구표



연제 수도 그후 점차 증가하여 1994년에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통과된 1백43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국내학자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연제를 발표한 사람은 강석린씨로, 1968년 일본 방사선의학회에서 처음이었으며(연제 : Pulmonary Angiography in totally destroyed lung, 강석린) 그후 회원들의 해외 우수 의료기관으로의 연수가 증가하고 1987년에 아시아대양주방사선의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로 회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연제발표의 열의가 뚜렷이 증가하였다.

전 의학계의 학술대회중 그 규모나 권위가 가장 높은 북미방사선의학회(Radiologic Society of North America)에서 1985년 국내 연구로는 최초로 연제 발표한 이래 학회 참석회원수와 연제발표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78편에 이르는 많은 논문들 구연 또는 학술전시하였다.

또한 1992년 이후 여러명의 회원들이 학술논문전시 및 구연 등으로 북미방사선의학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대한방사선의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자료로 외국학술지에 첫번째 저자로 게재한 것은 1961년(Pulmonary Paragonimiasis as a cause of Loffler's syndrome, Radiology, 박용휘)이며 1985년 이후로 해외논문게재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이후에는 연간 60~70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방사선의학회 회원들의 연구결과 발표의 국제화에 대한 열의의 결과는 1994년 Elster 등이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AJR)」에 발표한 논문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에 요약되어 나타나는

데, 이에 의하면 1980~1982년 2년간에 비하여, 1990~1992년의 2년간 해당학술지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표된 논문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증가가 뚜렷하였으며 한국, 일본, 독일의 선도적 역할로 AJR이 국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간의 학술적 교류 필요성을 서로 확인하고 1980년 9월 '상복부 방사선의학'이라는 제목으로 제1회 한일방사선의학회가 개최되었으며 그후 매 2년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학문교류는 물론 양국 방사선과 의사간에 친분을 돈독하게 하여 국제학회 등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서울올림픽 개최 전년도인 1987년 9월 아시아대양주방사선의학회 제5차 대회를 서울로 유치하여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총 36개국에서 2천1백명이 참가하여 특강, 심포지엄(23개), 일반강의(16개), 일반연제 발표(36세션, 3백79연제), 학술 전시(1백2편) 등으로 참가국 수나 학술대회 내용이 역대 어느 대회보다 우수하여 대한방사선의학회의 학문적 수준을 해외의 우수 학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또 1993년 5월에는 대한방사선학회 후원으로 제1차 아시아 태평양 심혈관 및 중재적방사선과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는 국내에서 갖는 국제학회로서는 최초의 세부전공(subspeciality)학회였다.

〈학회지 발간〉 1964년 5월에 「대한방사선의학회잡지」라는 학술지명으로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1971년까지 매년 1

권씩 발행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대한방사선의학회지」로 개정하면서 1980년까지 연 2회 발간하였다. 그후 원고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1982년부터 연 4회 계간지로 출간하였고 1985년부터는 격월간지로 출간하였으며 최근에는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매월 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학회지의 크기도 4×6배판에서 국배판으로 대형화하였으며 표지도 전면 개편하였고 사진도 질적인 면에서 국제학술지에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논문 심사는 60~70명의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차 심사위원의 1차 심사와 편집위원(11명)이 2차 심사를 하는 철저한 이중 심사제로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중 수준미달의 경우 출판이 거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출된 원고의 95% 이상에 대하여 수정의뢰를 하였다.

의사100명 참가 월례집담회

〈집담회 개최〉 소수의 인원이 모여 시작된 증례토론회가 기반이 되어 월례집담회가 시작되었으며 서울시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흥미 있는 증례를 각 병원에서 준비하고 발표하는 형태였다. 초기에는 10~15인의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참가하였다. 서울에서의 월례집담회의 발족과 더불어 지방에서도 집담회가 결성되기 시작하여 활성화되었다.

1970년대말 CT와 초음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대규모 대학병원에만 먼저 도입되었기 때문에 도입되지 않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최신 영상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CT영상진단의 경험을 여러 사

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Imaging conference'라는 별도의 월례집담회를 만들어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연수교육 실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을 1981년부터 시작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련과정중 전공의들의 실력평가와 교육방향의 설정 등을 목적으로 전공의 평가고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전문의 연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전문의, 특히 개업의들이 방사선학 분야의 최신지견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2년 미국 Armed Forces Institute of Pathology(AFIP)와 협의하여 한국에서 매년 방사선학관련 병리학강좌가 열려 연수교육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춘계 및 추계학회시에 외국의 우수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방사선학의 최신 지견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있다.

학술상 제정...연구비도 지원

〈학회상 시상〉 학회의 역사가 깊어지고 비중이 커지자 연구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방사선의학회 학술상을 제정(1966년)하였으며 연구업적이 가장 우수한 회원 1명에게 매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메달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였다.

1986년부터는 급증한 학술대회의 연계수로 학술상 본상과 장려상으로 2명을, 1989년부터는 전공의 학술상을 포함, 3명에게 학술상을 시상하였다. 1972년부터 전공의들의 방사선학적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술대회때마다 주관대학을 지정하여 20여점 이상의 퀴즈필름을 전시하여 전회원을 대상으로 응모하도록

하여 정답자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학술 전시상도 제정(1974)되어 증례전시중 우수작품에 시상하고 있다.

또한 제5차 아시아대양주방사선의학회 학술대회(1988년) 본부로부터 기증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외 유수학술지에 대한방사선의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의 연구를 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국제우수논문 저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이 매년 4~6인에게 각각 미화 2천 달러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연구비 지원〉 학회 회원 대부분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학회 자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정연구 계획을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받아 이중 엄선된 1편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해 학술대회에서 숙제보고를 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한방사선의학회는 독일 쉐링회사로부터 매년 연구비로 미화 3만달러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연구비는 매년 엄선된 3개 학술연구과제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관련학회 및 관련단체〉 대한방사선의학회로부터 분리되거나 파생되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협회 또는 학회로는 초창기에 함께 활동하던 기사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방사선사협회(1955년 창립),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방사선 동위원소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문적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한 대한핵의학회(1961년), 초음파의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사선과, 외과, 산부인과,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발기하여 창립한 대한초음파의학회(1980년), 종양치료의 중요 부분인 치료방사선과학의 학문적 발전이 거듭됨에 따라 전문의 교육, 전공의 수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한방사선의학회로부터 분리, 독립한 대한치료

방사선과학회(1982년)와 그밖에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등이 있다.

또한 대한방사선의학회에서는 1965년 당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집단 검진자들에 대한 간접흉부 X선촬영에 대하여 방사선과 전문의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질병 진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핵협회, 보사부, 노동청, 보사분과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그후 일반 공무원, 집단검진 등 간접촬영사진의 판독에 봉사하였고 1968년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 X선검진협회를 창설하였다.

컴퓨터 영향 영상진단 진전

〈앞으로의 전망〉 1백년전 뢰트겐 교수가 X-선을 발견한 이후 이를 이용한 방사선과학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1970년 이후 CT와 초음파, 중재적 방사선학의 발달, MRI의 임상이용 등으로 영상의학의 발전이 그 어느 의학분야보다도 활발하였고 진료부문에의 공헌이 실로 막중하였다. 이러한 방사선과 영상진단의학의 발달은 컴퓨터공학 등 첨단산업의 발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첨단공학의 발달은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첨단의학 영상장비도 더욱 발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방사선과학을 전공하는 전문의의 수나 질적인 향상이 끊임없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방사선의학회는 회원들의 학술활동, 해외 및 국내연수, 연구활동, 전공의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방사선과 의사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⑤7